



“새로운 교육중심대학 모델, 건양대학교”

-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에 전력투구
-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 자랑거리
-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는 변화 추구

대학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 아닌 것은 분명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와 취업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기는 쉽지 않다. 주변 읍면지역까지 합쳐 인구 약 13만 명밖에 안 되는 지방 소도시 논산에 위치한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개교한 지 아직 20년이 안 된, 재학생 8,000여 명 정도 규모의 학교다.

뭐 하나 유리한 조건이 없는 건양대학교는 그러나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100%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률을 자랑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성과는 건양대학교가 개교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실험하는 도전하는 대학이기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장이 직접 신입생, 졸업생 전원과 면담

건양대 김희수 총장은 올 1학기에 2달 동안 학과별로 모든 신입생을 면담하였다. 44개 학과의 강의실을 돌

아다니며 2,00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해결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 2학기에는 역시 44개 학과 강의실을 방문하여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회를 향해 나가는 예비졸업생들에게 응지를 불어넣어 주고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느낀 점, 개선해야 할 점을 들어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교수, 강의 잘 못하면 재교육 받아야

‘학생중심의 대학’,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된다.

첫째, 교수가 중심이 아닌 학생을 위한 강의시간표를 편성한다. 학생의 공강시간 등을 고려해 시간표가 작성되는데, 시간표는 주중 고르게 배치한다. 서울의 교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의 교수들은 월, 금요일에 수업을 배치하기 싫어한다. 서울에 있는 집에 가서 가

죽들과 지내고 싶기 때문이다. 어떤 지방대의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금요일 날은 주차장이 텅 비기도 한다. 이래서는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건양대는 교수를 임용할 때 이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조건으로 임용한다.

둘째, 교수가 휴강을 하려면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휴강은 안 되며, 휴강하면 학기말 보강주간에 반드시 보강해야 하고, 공휴일 때문에 강의가 휴강이 되어도 학기말 보강주간을 이용해 보강해야 한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MT나 OT 등의 행사는 주중에는 허락되지 않으며 방학 중이나 주말에 해야 한다.

셋째, 교수가 강의를 못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를 촬영해 직접 쳐다보면서 자신의 단점을 컨설팅을 받는다. 또한 강의 진단 체크리스트를 받기도 해 강의 중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아보기도 한다. 이 뿐 아니다. 강의시간에 다른 교수가 들어와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다. 때론 학생 사이에 섞여 교수끼리 질문을 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넷째, 학기말이 되면 교수가 학생보다 성적표를 먼저 받는다. 바로 강의평가 성적표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고, 이 결과는 이듬해 교수의 성과급에 반영한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전력

학생중심대학을 지향하는 건양대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학생 강의실 문에는 해당 강의실에서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시간표가 붙어있다. 학생들은 강의실 앞에 붙어 있는 시간표를 통해 강의실 사용현황을 알 수 있고 공강시간에는 학과 행사나 자율학습의 장으로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강의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전자카드를 출결석을 체크한다. 대학본부에서는 학생들의 결석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강의 진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의 고질적인 시험문화를 바꾸고 있다.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문제의 내용과 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험기간이 되면 전교에 '당당하고, 진지하게 평가받자'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린다. 또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도록 철저한 시험감독과 시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한다.

넷째, 건양대에 들어서면 녹색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는데 이는 학생들이나 외부의 손님들을 생각하는 고객중심 마인드의 출발이다. 행정부서 사무실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밖에서 안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강화 유리로 되어 있다. One-stop 서비스센터도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한곳에서 여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건양대학교는 장학제도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먼저 다이어트장학금, 금연장학금이라는 특이한 장학금이 있다. 이것은 금연과 다이어트가 공부만큼 큰 노력이었다

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런 극기의 정신이라면 앞으로 때가 되면 공부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양대에는 매우 특별한 포인트 장학제도(H4C)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노력을 포인트로 누적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특정 자격증을 따거나 봉사활동을 했을 때, 도서관 이용이 많다는 등 학생들의 실적이 모두 포인트로 적립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갑자기 가정형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신문고 장학금, 튜터장학금, 봉사활동 장학금, 한아름 장학금 등이 있다.

취업률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명문 자리매김

건양대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국에 대학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역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평가 때문이었다. 건양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취업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대학 취업률 통계에서도 2005~2006년부터 2년 연속 해당 그룹[4년제 대학 졸업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1위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항상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었다.

건양대가 이처럼 취업에 강점을 보이는 것은 '입학하면 취업까지 책임진다'는 김희수 총장의 교육철학에 따라 대학 시스템이 이를 위해 가동되고,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숙박시설까지 갖춘 『취업매직센터』를 독립건물로 전국최초로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부터 독특하다. 이미

5년 전, 졸업생을 전원 취업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취업매직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진로상담실, 모의면접실, 어학실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방과 후 보충 수업으로 취업교육프로그램, 취업특강, 모의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설은 그간 100여 개 대학이 벤치마킹해갈 정도로 대학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센터에서는 연간 1,200명에 대한 개별 모의면접이 이루어진다. 모의면접 내용을 다시 녹화해서 문제점을 전문교수가 조목조목 짚어주는데, 면접시 복장이나 외모, 메이크업, 앉는 자세, 답변 요령 등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준다.

이와 함께 전국최초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건양파워프로그램(KPP, Konyang Power Program)'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학과별로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과정과 외국어 교육을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5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다. 연간 200여 개 강좌가 개설되는데 연인원 5천여 명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82명의 현장전문가를 명예직인 전문기업인교수로 임명해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졸업 전에 경력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전문기업인교수로부터 특강, 실습, 멘토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는 변화 추구

건양대학교는 지금 잘 되고, 길으로 볼 때 문제가 없

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안주하지 않는다. 항상 앞으로 건양대학교가 나아갈 길이 무엇이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쓰고 이를 토대로 변화를 추구한다.

건양대에서는 2003학년도 이후 7년 동안 모두 15개 학과가 신설, 통합, 폐지되거나 학과 이름과 성격이 바뀌었다. 학과 구조개혁 및 새로운 학문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 예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제약공학, 운동처방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병원관리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세무학과, 의공학과 등이 그 실례가 된다.

또한 건양대에는 '건양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육성하는 유일학과 프로그램이 있다. 건양대가 가진 기반, 또는 지역적 특성 등 건양대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학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내 최초로 지난해 군무원 양성을 위한 국방공무원학과가 개설되었다. 건양대가 위치한 논산은 육해공 3군본부, 훈련소, 항공학교 등이 있어 명실 공히 국방도시임을 감안해 국내 최초로 개설했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소홀할 수 없다.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학생선발에서도 지역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지역할당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의학과의 경우 50%, 간호학과는 60%를 대전충남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했다. 최근 인기 있는 학과는 수도권 학생이 지원해서 입학하고, 지방학생들은 그 자리를 뺏긴다. 그러나 수도권 학생들은 면허를 따고나서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

는데 지역할당제도를 도입해보니 지역에 남는 학생이 70~80%에 이르고 있다.

교육성과 다양한 분야에서 입증

이러한 노력 결과 교육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공일치 취업률이 매우 높아졌다. 2008년도 졸업생의 경우 제약공학과는 대학원에 진학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제약회사에 취업하였고, 병원관리학과 졸업생이 병원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비율이 80%에 이른다.

제약공학과는 학과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기업체의 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 반영한다. 병원관리학과는 교수들이 평소에 병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본다. 세무학과는 지난해 22명의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를 배출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임상병리학과는 100% 국시합격과 동시에 전국 수석을 배출했다.

건양대는 교과부의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37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5,000~10,000명 규모 사립대학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에서 2008년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으로 도입한 포물리에 의해 건양대는 2년 연속(2008, 2009)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포물리는 성과지표[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수준]와 여건지표[전임교원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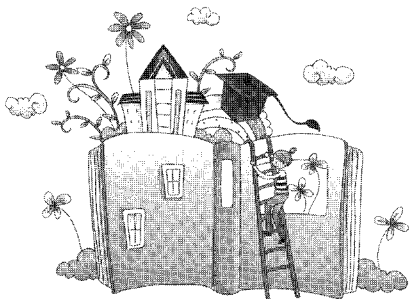
이와 함께 대학 최초로 한국윤리경영학회 '2009 기업윤리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는 매

년 기업이나 민간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이 잘 마련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 대학으로는 최초로 기업윤리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건양대는 또한 대전·충남 지역 최고의 입시·재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입시경쟁률에서 7.4:1로 대전·충남 평균 3.4: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입시경쟁률을 보였으며, 올 수시모집에서도 일반전형의 경우 8.5:1의 경쟁률을 보였다[입학사정관 전형 4.35:1]. 이와 함께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101.3%로 지역 대학 중 최고의 등록률을 보였으며, 2009년도에도 104.4%로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중심대학의 새 모델 제시 포부

건양대학교는 그동안 각 대학에서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으나 이제는 정말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배출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중심 대학이 나타나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교육중심대학으로 대학의 방향을 설정했다. 건양대학교는 새로운 교육중심대학 모델을 향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양대학교 김희수 총장은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것은 200개가 넘는 많은 대학 가운데 또 하나의 대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대학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



대 / 학 / 연 / 혁

1979. 8.26	학교법인 인수학원 인수(이사장 의학박사 김희수)
1980. 5.16	학교법인 '건양학원' 으로 법인명 변경
1991. 3. 1	건양대학교 개교(10개 학과 400명)/초대학장 이창갑 공학박사 취임
1992. 4. 1	종합대학으로 승격(초대총장 이창갑 공학박사 취임)
1995. 2.24	제1회 학위수여식(145명)
2000.2. 1	건양대학교병원(대전) 개원
2001. 1.29	제4대 총장 의학박사 김희수 취임
2002. 8.16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2. 11.18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5. 3.11	서천 춘장대 수련관 준공
2005. 10.1	취업률 90.4%로 전국대학 중 1위 기록(교육인적자원부 발표)
2005. 10.11	한국어교육원 개원
2006. 5.18	건양역사관 개관
2006. 5.19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NURI)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6. 9.22	취업률 90.2%로 2년 연속 전국대학 중 1위(교육인적자원부 발표)
2007. 3.22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7. 8. 3	경영분석 종합평가 우수 대학 선정(한국사학진흥재단)
2007. 10.17	외국어 전용공간 G.C.C(Global Communication College) 개관
2008. 12.3	2008년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선정(교과부)
2009. 4.20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교과부)
2009. 4.24	전국 대학 최초 윤리경영대상 수상(한국윤리경영학회)
2009. 9.21	취업률 전국 1위(4년제 대학 C그룹, 교과부)

건양대학교 김희수 총장은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것은 200개가 넘는 많은 대학 가운데 또 하나의 대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대학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